

북한 시장화와 사회적 자본*

김성중**

본 연구는 북한 시장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질서 변화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의 지배적 규범이나 가치체계의 특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관찰할 때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연결망, 규범, 신뢰이다. 시장화 이전 북한 사회의 대표적 연결망은 국가 또는 당 중심의 공식적 연결망이다. 공식적 연결망은 통제와 지시가 이루어지는 수직적이고 폐쇄적 연결망이었고 감시와 속박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연결망 구성원들은 상호 간 신뢰가 낮고 서로 무관심했다. 시장화 과정에서 거래와 교환을 목적으로 비공식적 연결망이 활성화되었다. 혈연적 연결망이 가장 기본이 되었고 다양한 연줄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발성에 입각한 유기적 연대가 만들어지고 신뢰에 기반한 호혜성 규범이 생겨났다. 신뢰 대상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신용거래가 등장하는 등 신뢰는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었다.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등장한 연결망에 배태된 호혜성 규범이 사회 전반의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재 북한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 시장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결망, 호혜성 규범, 신뢰

* 이 연구는 2018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poec@dankook.ac.kr)

I. 서론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핵실험, 숙청, 처형, 고난의 행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가려져 있던 북한이 초고층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늘어선 여명거리, 상품이 넘쳐나는 종합시장과 백화점이라는 다른 얼굴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북한 사회가 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존재 자체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통치 경험에 전혀 없는 젊은 최고지도자에 의한 권력 세습으로 불안하게만 보였던 북한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국가보안기관의 감시, 주체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상통제, 외부정보 유입 차단 등과 같은 통제 수단을 통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독재국가로만 알려져 왔다. 이러한 억압기제를 통해서만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북한의 내부를 다각적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공급체제가 붕괴되어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시장화가 시작되었다. 북한 인민들은 의식구조와 생활방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 경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막론하고 장마당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시장이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과거 국가계획을 전제로 유지되었던 사회질서가 개편되었다. 생존의 위기에서 자구적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장마당이 주민들의 생존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시장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질서의 변화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체계 또는 문화적 특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관찰할 수 있다. 면식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친밀한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타

산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협동과 집단 가치를 추구하는 이타적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 개념이 주목받게 되었다.(류석춘 외, 2003) 국가공급망을 대신해서 등장한 자연 발생적 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상호 연대하고 통합을 경험했다. 시장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규범을 경험하게 되고 시장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를 공급해주는 절실한 연결망이면서 강력한 규범 및 신뢰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인간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와 자원을 교류하고 살아간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의 매개가 되는 연결망을 통해 얻어지는 혜택이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획득되고 교환되는 자본이다.(류석춘 외, 2003) Fukuyama(2011)는 정치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려면 우연히 비계획적으로 생겨난 제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화 과정을 경험한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으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고찰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의 북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연결망, 규범, 신뢰는 윤리와 당위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상의 일부분으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다.(최우영,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배급제 시스템의 붕괴 결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장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결망, 규범,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역사·문화적 맥락(historical-cultural context)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직접적 정보의 제약으로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근 탈북민들의 증언과 시장화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탐색적이고 해석적 연구의 성격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데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가 사회적 자본의 연구에서 역사·문화적 맥락 접근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게 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서 관찰되는 신뢰, 호혜성 규범, 연결망을 경제적 자원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나 물적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보상이나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특성으로 본다. 미시적 차원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은 신뢰, 호혜성, 상호존중, 협력, 연결망, 멤버십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구성원들의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한편, 사회구조를 통해 관찰되는 공공의 가치, 규범, 시민의식, 사회적 공정성 등은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이다.(이동원 외 2009, Coleman, 1988) 사회적 자본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잠재적으로 거래비용을 낮추거나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성장, 사회안정, 민주주의의 성숙에 필수적 자본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김인설, 2013; Coleman, 1988; Fukuyama, 1995; Woolcock, 2001)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면식이 있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서 얻는 실제적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¹⁾. 전통적 의미의 물리적 형태의 자본이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과 같은 비물리적 형태로 전환되어 이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혜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사회적 자본이 언제든지 경제적 보상이나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은폐된 형태의 자본이 축적되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제사회학자 Coleman(1988)은 신뢰나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이면 사회적 자본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사회적 자본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효

1)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 명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Bourdieu 이다.

과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측면에서 생산적이며 그것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Puttnam(1993)은 특정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위해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특정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urt(1992)는 사회적 자본을 미시적 관점에 보아 다른 형태의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 주는 친구 동료의 일반적 연결망이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Fukuyama(1995)는 거시적 관점에서 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사회적 자본을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서 축적되고 나타나는 혜택이나 이익으로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규범, 신념, 제도, 일반화된 호혜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잠재적 형태로 존재하는 자원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로는 연결망, 신뢰, 규범을 들 수 있다. 연결망은 사회적 자본의 결정적 원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의 연결망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에 기초한다. 일반적으로 규범은 상호 호혜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므로 규범을 통해 사회적 자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호 호혜성은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주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개인의 이기적 행태를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규범이 존재하는 곳에는 특정한 일이 가시적 성과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규범이 사회적 자본의 요소가 된다.

유사한 가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관계를 지속할 때 신뢰가 생겨나며, 신뢰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과정을 원활하게 한다. 신뢰가 주는 사회적 이익은 사람들 사이 거래비용의 감소, 부도덕한 행동 억제, 정직한 행동 유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촉진한다.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적어 경제적 거래가 위축되고 새로운 시도하기가 어렵다. Fukuyama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혈연관계 내에 있는 신뢰 관계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를 저 신뢰 사회라고 하였다.²⁾ 신뢰 없이는 사람들 간에 네트워크나 규범 및 신념이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는 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 유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김용학(2004)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연결망 내에서 초기에는 서로 불신과 경쟁 상태에 있게 된다. 차츰 반복적 상호작용이 계속되면서 상호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규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형성된 규범은 일탈행위를 억제하고 연결망의 결속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은 규범의 긍정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규범을 어기는 구성원은 연결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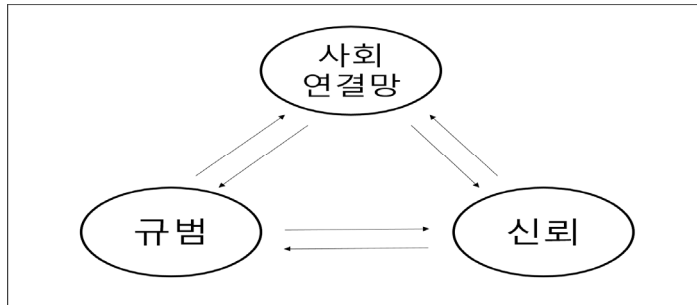
신뢰와 규범은 단기적으로는 직접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신뢰는 연결망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하며, 내면화된 규범은 신뢰와 협동을 촉진하게 된다. 신뢰와 연결망은 상호적 관계로 신뢰는 연결망을 창출하고 강화시켜 나가며 연결망은 다시 신뢰를 제공하는 관계이다. 신뢰가 축적될수록 연결망의 결속이 높아지고, 신뢰를 깨는 행위자는 연결망에서 배제시킨다. 신뢰와 연결망의 관계는 누적적 상호작용 관계로 경험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연결망이 안정화 된다. 연결망이 신뢰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결망의 지속성과 접촉 빈도, 연결망의 중첩성, 상징의 공유, 연결망 구성원의 동질성이 있다.(김용학, 2004)

2) Fukuyama는 이웃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연결망, 규범, 신뢰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 연결망, 규범, 신뢰 사이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Ⅲ. 북한 시장화의 진전과 사회질서 변화

1. 북한 시장화³⁾의 전개

상품이 교환되는 시장은 경제난 이전에도 농민시장의 형태로 일부 인정되고 있었다. 국가 식량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농민시장이 차츰 대규모 암시장으로 변화되었다. 초기에는 상행위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시장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다. 시장참여 방법도 알지 못했다. 스스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3) 시장화(marketization)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을 통해 수요 공급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 가격 신호에 의해 사회 전반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시장화는 일반적 의미에서 물품이 거래되는 장소로서 시장(market place)의 발생 및 활성화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양문수, 2012)

장마당에서 장사를 통해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일부 사람들을 발견하고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생겨났다.⁴⁾ 신규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농민시장은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화 되었다. 거래 품목에 대한 통제가 무의미하게 되었고 식량은 물론 일상 생활용품, 내구소비재, 나아가 일부 생산재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⁵⁾ 북한 정부는 암시장의 확대를 심각한 식량과 생필품 부족 상태를 해결할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묵인하였다.(양문수, 2012)

경제질서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발표하고 기업의 시장경제활동을 용인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⁶⁾을 도입하여 생산재 시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동안 계획경제의 모순으로 고통받던 기업들은 물자교류시장 도입이 시장화를 통한 자력생생의 전면화라는 신념체계의 변화로 해석하였다. 시장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정당성이 부여되었다고 받아들이면서 기업들의 일탈행위는 점차 가속화 되었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김국신 외, 2009) 2003년 3월에는 기존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식량과 공산품 유통까지 허용하면서 자생적 불법 시장이 비로소 합법적 종합시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⁷⁾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돈주로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⁸⁾ 상인들의 계층

4) 조경아 외(2010)는 북한 암시장 확대 과정을 재화의 공급자, 소비자, 중간 소매상, 노동자, 그들과 협상과 뒷거래를 하면서 불법적 상거래를 눈감아 주는 정부 관리 등의 상호작용 하면서 나타난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과정으로 설명하였다.

5) 양문수는 종합시장 허용 이전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내역과 물품 취득 경로를 조사했는데 의류, 식기, 가구 등 개인 보유 자산과 개인 차원의 생산물은 물론 기업차원의 생산물, 중국 등 제3국 유입품, 국제사회 지원물질 등 합법적 불법적 취득 과정을 통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었다.(양문수, 2010)

6)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은 중국과 합영으로 2005년 평양과 지방에 개설되었다.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허용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 간 거래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기업 간 거래에 머무르지 않고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자재의 조달은 생산의 확대와 이윤의 창출로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의도와는 달리 기업의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임정훈, 2008); 김국신 외, 2009)

7) 종합시장에 공장 및 농장이 참여하면서 상품공급량이 대폭 증가하였다.(정은미, 2009)

분화가 이루어져 도매상과 소매상이 등장하고 비공식 자금융도 생겨났다. 자금용 시장이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과 연계되면서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점점 확대되는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생겨났다. 시장의 활성화되면서 노동시장의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⁹⁾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이들 사이 서로 연계가 강화되면서 상승작용이 나타나면서 시장화가 가속되었다.

2005년부터 경제개혁 정책기조가 후퇴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종합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되었다.¹⁰⁾ 서비스업 개인 투자 제한, 무역회사의 구조조정 및 검열이 이루어지고 돈주와 당정 간부에 대한 처벌 등과 같은 전방위적 통제가 이루어졌다. 결국 2009년 11월에는 화폐개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화폐개혁으로 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불안한 상인들은 상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으며 정부와 북한 화폐에 대한 불신의 증가로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 같은 외화 선호현상이 심화되었다.¹¹⁾ 결국 2010년에는 5·26 지시를 통해 시장억제 정책을 철회하고 시장허용 정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5·26 시장허용 조치 이후 시장화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시장 거래 물품이 다양화 되었다. 돈주들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물질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¹²⁾

8) 돈주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친척들로부터 종자돈을 지원받거나 시장 거래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9) 상업부문의 상점 노동자, 수산업에서 선주에게 고용되는 어업 노동자, 개인수공업에서 임금 노동자, 농업노동자 등이 생겨났는데 대부분 비공식적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일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양문수, 2012)

10) 기존 사회질서의 동요와 정치·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노동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종합시장 매대 상인에 대한 연령 제한, 판매 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영업 장소 제한을 시행하고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11) 화폐개혁은 환율과 물가 폭등 및 상품 공급 위축에 따른 시장 마비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한편 외화를 매개로 부를 축적했던 특권층과 돈주들은 화폐개혁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12)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2014년 경제 주체들에 대한 자율경영권 부여 등 시장화를 촉진하는 일련의 경제관리 방침들이 발표되었고 향후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 당국의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에 대한 발표로 공식 확인하였다.

정부 배급에 의존해 살던 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고 생산자, 소매상인, 중간상인, 돈주 등으로 다양한 기능적 분화를 통해 시장을 양적 질적으로 발전시켰다.(김국신 외, 2009) 시장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나름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장은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경제의 보완 수단이라는 공식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일관성 결여는 북한 당국이 처한 근본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경제활동 주체들의 자유로운 시장활동 참여 욕구와 정부의 제도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¹³⁾

2. 시장화에 따른 사회 변화

1) 주민의식의 변화

집단주의는 오랜 기간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 규범으로 작용하여왔다.¹⁴⁾ 따라서 다수와 인민 대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주의적 행동은 일탈자라는 인식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시장 활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활동이 되었고 그동안 부정적으로 보았던 시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시장 경험이 축적되면서 내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으며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점차 받아들여지면서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일반화된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집단적 정체성에 의해 억압되었던 개인적 욕구를 시장활동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고 욕구 충족의 다양한 방법들

13)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화가 필요했으나 시장화의 진행은 한편으로 정치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왔다.

14) 조직 생활을 통해 집단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익히며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획일화된 자아를 인식한 결과이다.(이교덕 외, 2007)

도 발견하게 되었다. 공식적 계획경제 이외에도 장사나 부업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부나 당에 대한 의존과 충성심이 약화 되었다. 주민 상호 간 접촉 및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면서 주민 생활의 사적 공간이 확대되었다. 다양한 외부정보를 접하면서 불만이 생겨났다. 먹는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회의, 불신,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법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 되었다. 과거에는 당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생명이 가장 중요하였다¹⁵⁾. 그러나 시장화를 통해 신념의 변화가 생겼다. 돈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에 있음을 알게 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 신흥 부유층의 탄생

시장화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의 축적 정도가 달라지면서 신흥 부유층이 생겨났다¹⁶⁾. 동용승(2018)은 신흥 부유층을 발생형태에 따라 권력의존형, 자수성가형, 대외의존형으로 구분하였다. 권력의존형은 국가기관의 높은 자리에 위치한 인물과 가족들이 형성한 부유층이다.¹⁷⁾ 이들은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업 기회와 관련 있는 이권, 분배 계획지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자수성가형은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사업수완으로 성공적 사업을 일으켜 재산을 축적한 부류이다. 대외의존형은 해외 대표부에서 국가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외무역에 종사하면서 가격과 환율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다른 부류는 해외에 있는 친인척

15) 당에 입당하여 당간부가 되는 것이 성공적 삶이라는 일반화된 신념이 신체와 정서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다.(조정아 외, 2010)

16) 신흥 부유층은 자산을 통해 얻은 경제적 과실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로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며 소비를 주도하는 한편 새로운 업종을 개척하고 외자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활용하여 장마당에서 매점 매석을 하기도 하고 사금융 시장에서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계층이다.

17) 윤인주(2015)는 이러한 과정을 정치자본의 사적변환이라고 불렀다.

이나 지인을 통해 무역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이다.

신흥 부유층의 사금융을 동원한 투자 활동은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평양에서 보이는 화려한 고층건물, 고급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놀이시설, 위락시설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투자를 통해서이다. 북한 당국은 사금융 활성화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상업은행법 제정을 포함하는 금융 개혁을 시도했으나 아직 법제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사금융을 공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도하였다.¹⁸⁾

신흥 부유층의 등장은 시장활동 촉진과 정보 유통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 금융의 발달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는 휴대전화 보급 확산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는 돈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정보 유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이해정, 2018) 그러나 이들이 앞으로 북한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북한당국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면 언제든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방식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3) 사적 부문의 확대

시장화 확산의 당연한 결과로 서비스업, 토지이용, 주택시장, 운수통신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적 부문 확대 현상이 심화되었다. 경제 위기로 공장 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8:3 노동자들이 증가하여 노동자의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80%에 이르게 되었다.¹⁹⁾ 이러한 높은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소규모 개인기업 창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

18) 외화 정기예금, 외화 카드, 외화 상점의 이용확대, 전자 상거래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이해정, 2018)

19) 김병연·송동호(2008)의 탈북민 면담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거주 당시 비공식 경제활동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문이 78%에 이르고 있다. 이석(2012)에 의하면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 가구 경제활동이 83%라는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2008)도 있다.

업의 활성화가 나타나게 되어 지방공장, 기업소, 식당, 서비스업 등 중소형 기업을 개인이 임대 운영하는 현상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유 기업에서 돈주들이 기업 설비나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의 이윤을 수취하기도 하고, 돈주에게 공장의 일부를 임차해 주는 방식으로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이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이석기, 2012; 윤인주, 2015)

소토지 농사의 활성화도 북한경제 사경제화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이다. 식량난이 계속되면서 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서 농민들이 자가 소비 및 시장 판매 목적으로 소토지 경작이 확대되었다. 소토지 농사는 공식 개인 부업지, 비공식 개인 부업지, 집단 부업지, 공장 기업소 부업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자재조달 방식과 관리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주택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공식적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각급 기관과 기업소에게 자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노동자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경제난을 거치면서 주택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었다. 김정은 정권들어 평양의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국가 계획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신규 건설의 상당 부분이 민간의 기획으로 추진되었다.(양문수, 2018) 돈주들은 권력기관의 비호 아래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기존 주택을 재개발하는 자본주의 방식 부동산 개발까지 나타났다.(정은이, 2016)

철도 수송망이 전력난과 설비 노후화로 운영 효율이 떨어지면서 도로 교통 중심의 비공식 교통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김석진·양문수, 2014) 돈주들이 국영기업이나 기관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수업을 하는 ‘씨비차’ 형태로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였다²⁰⁾. 이들은 점차 버스사업, 영업용 택시사업, 승용차를 위한 물품과 승객 운송 등으로 확대되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08년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은 비공식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북한 상인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시장 정보를

20) 씨비차는 기관에 등록비와 월간 수입의 일부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운영되었다.

공유하고 물량과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휴대전화가 시장경제 활동의 필수품이 되었다.(이해정, 2018)

사금융은 형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중앙은행이 기업 자금 지원 능력 상실하게 되자 돈주들이 자연스럽게 기업 자금 공급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도입으로 사금융이 점점 확대되었다. 송금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수요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신용에 따라 이율이 결정되는 전문화된 사채시장이 형성되었다.²¹⁾

북한의 사경제화는 제도화를 통해 보장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 불완전하지만 시장화가 계속될수록 사경제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비공식적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이용권의 인정과 보호, 주택의 사적 보유 인정, 소규모 사유 기업 설립 허용 및 기업활동 보호 등의 제도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향후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된 사적 자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에 대해 북한 당국이 어떻게 법제화 할지는 북한 경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이해정, 2018)

IV.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본 북한 시장화

1.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에 연결된 행위자들은 자원을 교환하면서 혜택을 주고받고 유대를 형성한다. 사회적 연결망 그 자체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연결망에 배태된 규범, 신뢰, 가치 등이 사회 전반에 혜택이나 잉여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최종렬, 2008) 자발적이고 수평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회적 연결망에서는 신뢰, 협

21)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은 고위층 월 3%, 중규모 상인 월 10%, 밀수꾼은 월 20-30%로 차별화되어 있다.(이해정, 2018)

동, 참여가 촉진되어 사회적 자본이 제공하는 이익과 혜택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 사회의 중심적 연결망은 집단적 관계망이다. 집단적 관계망은 국가가 사상통제를 통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²²⁾ 공식적 집단 연결망은 수직적·폐쇄적 연결망으로 의사소통이 권위적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연결망에서 정직한 정보 전달이 어렵고 조직의 위계적 상하관계에 부합하는 정보만 흐르는 경향을 보인다. 당과 수령의 결정은 절대적이며 민주적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방향적 정보 흐름을 특성으로 하는 연결망에서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흐르는 정보가 없다. 그 결과 정직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을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폐쇄적 연결망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긴밀한 규범의 강제가 용이하므로 강력한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간섭과 통제가 지나칠 경우 속박과 내부통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억압에 의한 사회적 불신이 조장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북한 사회에서 비공식적 연결망은 공동체적 사회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통제 대상이 되었다. 정권 당국은 이를 ‘기관본위주의’ 또는 ‘지방주의’라고 부르고 관료적 폐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조직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원-수혜 관계의 연결망은 그동안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²³⁾. 자발적이고 수평적 상호작용을 하는 연결망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의 통합에 필요한 협동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 사이의 횡적 연결이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활동에는 자발적 참여와

22) 북한 사회에서 각종 조직에서 실시되는 생활총화는 인민들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가 지향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 집합체의 단일성은 밀도가 높았지만 인민들의 일상 생활과 정신세계는 자율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되어 갔다.(한성훈, 2019)

23) 예를 들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계획의 불완전성과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의 차질이 생길 경우가 늘 있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보호하거나 비호해 줄 수 있는 연결망이 필요하게 되는데 주로 위계적 공식 라인의 상급기관에 보호자와의 연결망을 동원하였다.

신뢰에 기반하는 사회적 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시장화 이전 북한 사회는 이러한 연결망을 거의 갖지 못했다.

시장 활동에 참여했던 주체들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벗어나서 사회적 관계망을 능동적으로 형성하였고 시장 관계망을 통해 생존과 관련된 필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었다²⁴⁾. 시장화 초기부터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연결망은 혈연적 연결망이다. 혈연적 연결망은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동원한 개인이 가족 또는 친인척의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북한 사회에서 정치 권력에 접근해 있는 핵심계층들은 사적 경제활동의 먹이사슬 구조의 정점에서 시장교환의 주요 지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²⁵⁾.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은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혈연망과 연줄망을 형성하고 사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뇌물을 매개로 한 공생적 연결망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은 잠재적 기회를 활용하여 사적 경제활동의 성공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봉대(2008)는 탈북민 심층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시장적응 능력이 사적으로 가능한 연결망 자원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익 실현으로 시장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친척을 통해 구입한 설비를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등록하는 사업상 특혜를 받았고 유력한 가족과 친인척의 도움으로 사법기관의 단속과 검열을 회피하여 물질적 토대를 얻게 되는 것이다.²⁶⁾ 친인척에게 장사 밀전을 빌릴 수 있거나 안면 관계로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었고 사적 부문의 부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상태를 개선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반면 정치적 신분체계의 최

24) 김창욱(2010)은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형성된 연결망을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과정을 통해 설명하였다. 시장에서 시스템으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어 갔다고 보는 것이다.

25) 핵심계층 권력자들은 시장활동의 특혜와 보호를 제공하고 사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였다.(윤인주, 2015)

26)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 뇌물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권력자의 광범위한 재량권, 권력자의 비리가 공개적으로 지적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향, 시장화에 따른 뇌물수수의 새로운 기회 증가 등이 부패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았다.(윤인주, 2015)

하층에 속하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연결망 자원을 축적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사회적 연결망 자원의 빈약함 때문에 시장 활동에 참여할 방법을 찾지 못해 경제적 하층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혈연적 연결망은 폐쇄성이 강하여 연결된 행위자들끼리는 혜택을 교환하고 유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연결망에서 배태되는 혜택이 연결망 내부 행위자들에게만 제한되고 사회 전반에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 신뢰, 협동과 참여를 촉진하는 잉여가치나 혜택을 제공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2. 호혜성 규범

호혜성 규범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은 혜택을 사회적 관계망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되갚아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²⁷⁾에서 나오는 태도를 의미한다.(최종렬, 2008) 도덕적 의무감은 호혜적 실천을 위해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이익과 집단이익이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호혜성 규범이 사회적 연결망 내부에 배태되어 있다면 공동체의 강력한 내부통합성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공동체의 파괴를 방지하여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호혜성 규범은 최소한의 국가 조정으로 생산과 분배를 조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협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내부 메카니즘을 가진 강력한 사회가 된다.(최종렬, 2008)

시장화과정에서 뇌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뇌물은 안면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동원되기도 하고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개적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하였

27) 도덕적 의무감은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에서 나오며 의식이나 무의식에 내재된 도덕적 의무감이 합리성 기준으로 작용하면 단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을 극복하고 공공선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다. 뇌물이 널리 통용되는 관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규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 연결망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뇌물을 호혜성 기준으로 보아 그 특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뇌물이 상호 호혜성의 매개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경쟁자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기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계획에 의해 공급되는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 공장 기업소들은 자력갱생의 길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 입장인 일반 주민들은 소규모 지하생산, 밀무역 행위 등 여러 가지 불법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불법적 사경제 활동이 구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산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에 몰래 종사하는 가정공장에서 정부 허가 없이 생산활동을 진행하는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장지배인, 당간부, 사회안전부 요원들과 결탁하여 통행증을 발급받아 하수인들을 고용해 전국을 돌면서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조달하고 불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국가 소유물의 절취나 비공식적 연결망을 이용하여 국영 부문의 원료를 싼값에 양도받아 지하생산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이 비공식적 경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주민들의 물질생활 수준을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부패의 구조화는 도덕적 의무감에서 나오는 호혜적 실천행위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호혜성 규범과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규범들은 기존 북한의 사회 사상과 이념을 통해 강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집합의식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시장화 과정에서 생겨난 규범은 합의와 기능적 호혜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규범으로 특정 목적 아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시장화 이전의 규범이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인륜, 공동체성 등과 같은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삶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새로운 규범들은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 분화에 따른 유기적 이익의 원리가 규범의 원천이고, 생존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과 물질생활 수준의 개선이라는 도구성에 입각한 절차적, 조건적 규범이다. 규범이 기존

공동체 조직에서 억압되고 잠재되어 있던 개별 이익의 실현이라는 시장의 근원적 목적 달성과 같은 기능적 호혜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혜성 규범이 사회 전반의 일반화된 호혜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신뢰

신뢰는 정보의 불확실성 및 감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말한다.(박찬웅, 1998) 다소 배반의 위험이 있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상호 협력할 것이라는 호혜성 규범이 신뢰의 근거가 된다. 경제사회학자들은 호혜성이라는 규범보다 주관적 태도로서의 신뢰가 사회적 연결망 안에 배태되어있는 객관적 자산으로 중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연고집단 내에 존재하는 사적 신뢰를 공공영역에서 제도화된 정당성을 갖는 제도적 신뢰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불신을 제도화하는 연결망이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에서 행위자들은 계약서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해 있으므로 신뢰가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되는 신뢰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결과에 대한 평가로부터 형성되는 신뢰라는 점에서 조건적이며 제한적이다. 이는 자연적 공동체에 존재하는 관습적 규범을 매개로한 전인격적 신뢰와는 다르다.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신뢰는 조직운영, 역할분담, 이익배분 등과 같은 제도의 객관적 운영에 필요한 신뢰이며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신뢰가 제도형성 및 유지의 기반이 되며 객관적 제도와 규약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북한 시장화에서 발견되는 신뢰는 국가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식량의 조달과 필요 물품의

조달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시장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과 제도가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목적 성취에 기여한 결과로 일정 부분 신뢰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객관적 제도 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 활동에서 행위자들 사이에서 반복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행위에 대한 의미 해석의 일반적 틀이 되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지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당연시되는 공동의 기대와 행위자들이 표준화된 일상적 태도를 중심으로 배경적 기대로서의 신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북한 장마당에서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QR 코드의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신뢰가 시장 행위자들의 공동의 기대와 표준화된 일상적 태도를 통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부터는 차량을 이용해 북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택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전화망을 통해 작동되고 있어 유통과 물류 서비스가 장마당 활동에 등장했다. 이는 배경적 기대로서의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행위이다. 탈북자 면담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듯이 외상거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장 상인들 사이의 신용거래가 필수적이라는 응답자도 있고, 상품의 품질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면 평판이 나빠져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시장 행위자들의 연결망 가운데 점점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가 광범위한 경제적 거래 관계와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 관계로 까지 확산되어 자발성에 입각한 협동과 참여의 확대에까지 이르는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표1>에는 시장화를 전후한 북한의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연결망은 시장화 이전에 국가 또는 당 중심의 공식적 연결망이 중심적 연결망이었고 비공식적 연결망은 강력한 통제 대상이었다. 공식적 연결망은 통제와 지시를 특징으로 하는 수직적 연결망이며 감시와 속박의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시장화 이전 연결망은 비자발적 참여에 의한 강한 연대를 유지하였지만 연결망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낮고 서로 무관심하다는 것

이 특징이다. 시장화 이후에는 공식적 연결망이 약화되고 생존의 필요에 따라 비공식적 연결망이 활성화 되었다. 비공식적 연결망은 거래 목적으로 형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이라는 특징을 보이며 자발적 참여와 상대적으로 느슨한 연대를 보이고 신용과 신뢰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화 이전의 연결망에서 발견되는 규범은 부정적 호혜성 규범으로 의존적이고 의무감과 타성에 의해 작동되는 구조에서 발견되는 연결망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화 이후 자유 경쟁의 가치에 입각한 호혜성 규범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연결망의 폐쇄성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호혜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시장화 이전 기계적 연대에서는 신뢰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지 못했고 단일 집합의식이라는 기계적 틀이 신뢰를 대신하였다. 시장화 이후에는 자발성에 입각한 유기적 연대가 등장하면서 배경적 기대를 중시하게 되어 신뢰의 대상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신용거래가 나타나는 등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는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1〉 북한의 사회적 자본 비교

종류	시장화 이전	시장화 이후
연결망	• 공식적 연결망(국가, 당) • 비공식적 연결망(통제) • 수직적 연결망(통제, 지시) • 폐쇄적 연결망(감시, 숙박) • 비자발적 참여(강한 연대) • 저신뢰, 무관심	• 공식적 연결망(약화) • 비공식적 연결망(생존 필수적) • 수평적 연결망(거래, 교환) • 개방적 연결망(자유, 이익) • 자발적 참여(느슨한 연대) • 신뢰 인식
규범	• 의존적/타성/무관심 • 부정적 호혜성	• 상호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 • 자유 경쟁
신뢰	• 기계적 연대/저신뢰 • 기계적 틀(단일 집합의식) • 저신뢰(무관심)	• 배경적 기대(표준화) • 일반적 틀 • 신용거래 시작(인식 변화)

V. 결론 및 함의

북한연구는 분단체제가 만들어 놓은 정보의 결핍에서 오는 무지와 구조적 왜곡 때문에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북한 예외주의’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유환, 2019). 이러한 북한 예외주의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적대적 입장 때문에 온전하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북한 사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미숙함도 있었다(김진향, 2015).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 및 보고서와 북한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일부 저작들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원이 늘어나면서 북한의 변화상이 제한적으로나마 알려지게 되었다.(김재오 역 Smith, H., 2015) 북한을 잘 모르고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장마당의 등장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시장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망은 국가나 조직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적 관계망이다. 시장은 근본적으로 자생적 질서에 의해 운영되므로 개인의 선택 영역이 존중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활성화는 사적 영역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이 등장할 환경을 제공하였다. 시장에서의 연결망은 시장화 초기에는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생활 필수품 조달이라는 특수 목적 수행에 부합하는 지리적 경계 안에서 존재하였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연결망은 기능적 목적 수행에 부합하는 형태도 바뀌게 되었다.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경계의 제약을 넘어서 확대된 정보와 물자의 흐름이 점차 활발해지고 기능에 부합한 수평적 연계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연결망에 참여와 철회는 개인의 목적 수행에 대한 선택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발성과 자율성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적 연결망으로 진화하였다.

북한의 시장화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자본은 ‘결속적’ 사회자본이라기 보다는 ‘교량적’ 사회자본에 해당한다.²⁸⁾ 시장의 목적이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체의 결속이 아니라 생계 필요의 충족이라는 특정 이익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연결망은 대면적 관계를 넘어서 익명의 관계까지 확장되는 상황으로 시장이 교량적 통로가 되고 있다. 시장은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매개로 관계 자체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매개로 경제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특정 이익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적’ 사회자본이 아니라 ‘제도적’ 사회자본이다. 또 시장이 규범, 가치, 신념의 강화를 통한 정신적 과정을 통해 운영되기 보다는 구조화된 제도나 공식적 규약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사회자본이다. 시장은 적극적인 의미의 이익지향 조직이며 제도적이며 공식적인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oleman, Puttnam, Fukuyama 등 사회적 자본 이론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성원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신뢰를 촉진하고 정치·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와 경제성장에 지금까지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28) 결속형 사회자본은 가족, 친구, 동호회, 향우회 등 수평적 관계의 연결망으로 자의적 선택을 통해 형성된 관계로 비교적 구성원간 신뢰도와 친밀감이 높다.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직장동료, 지인, 인맥 등의 연결망에서 나오며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결속형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연대감이 특징이다.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지역주민, 국민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Woolcock, 2001; 김인설, 2013)

참고문헌

- 고유환(2019).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11(1), pp.5-32.
- 김국신·이석·이교덕·민병원·채승병(2009).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 국가화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김병연·송동호(2008). “Does financial liberalization increase growth volatility”,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석진·양문수(2014).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이론」, 서울: 박영사.
- 김인설(2013).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촉매로서의 예술: 예술기반 실행연구 사례와 문화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 27(2), pp.121-142.
- 김재오 역(2017). 「장마당과 선군정치: 미지의나라 북한이라는 신화에 도전한다」, Smith H(2015).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파주: 창비.
- 김진향(2015). 「개성공단 사람들」, 파주: 내일을여는책.
- 김창욱(2010). “북한경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틀의 재정립”,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4월호.
- 동용승(2018). “신흥 부유층의 탄생과 유형”, 「북한 시장화에 따른 사회변동 연구(SAND 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 류석춘·장미혜·배영(2003).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류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편역) 서울: 그린, pp.15-47.
- 박찬웅(1998).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201-207.
- 양문수(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아카데미.
- 양문수(2012). “2000년대 북한의 반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 「현대북한연구」, 15(1), pp.85-123.
- 양문수(2018). “북한의 변화상 이해하기 시리즈: 북한 경제정책 변화”, 「대한상의 브리프」, 제70호.

- 윤인주(2015). 「북한의 사유화 현상: 시장화를 통한 사적 부문의 확산」, 과주: 한국학술정보.
-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2007). 「새터민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통일연구원.
- 이동원·정갑영·박준·채승병·한준(2009).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 이석(2012). “2012년 북한경제를 보는 하나의 시각”,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7월호.
- 이석기(2012). “남북통합과 북한 경제의 사유화 정책”, 「남북한 경제통합연구: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이행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 이해정(2018). “북한의 사경제화 현황과 시사점”,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편. 한울아카데미.
- 임경훈(2008).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6(1), pp.281-307.
- 양문수(2012). “북한 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KERI 북한농업동향」 14(3), pp.3-19.
- 정은미(2009).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통일과 평화」, 창간호. 통일평화연구소.
- 정은이(2016). “북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등장과 함의에 관한 분석: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 18(9), pp.51-89.
- 조정아·임순희·노귀남·이희영·홍민·양계민(2010).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pp.1-388.
- 최봉대(2008).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이우영 편,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과주: 한울아카데미.
- 최우영(2006). “종친회의 역사 문화와 현실: 기억과 재현의 논리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3, pp.307-346.
- 최종렬(2008).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전상인·최종렬 공저). 서울: 백산출판

사.

한성훈(2019). 「인민의 얼굴: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 서울: 돌베개.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J.G. Richardson (ed)”, *New York: Greenwood*, pp.241-258.

Burt, R. S.(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204-220.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95-120.

Fukuyama, F.(2011).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London, U.K. Hamish Hamilton*, vol.99.

Puttnam, R. D.(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pp.249-259.

Woolcock, M.(2001).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pp.11-17.

North Korea Marketization and Social Capital*

Kim, Sung-Jong**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order due to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The key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re social networks, norms, and trust. The main social network of North Korean society before marketization was the official network of the one-party state. The formal network was a controlled, vertical-closed network that served as a means of monitoring and restraint. In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the kinetic network was the most basic, and various linkages were formed, resulting in spontaneous organic solidarity and trust-based reciprocity norms. Trust was recognized as an essential element with the standardization of trust targets and the emergence of credit transactions. It is North Korean social capital characteristics that have allowed the network that emerged from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with embedded norms of reciprocity to develop without the development of generalized reciprocity in open society.

Key words: Marketization,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 Reciprocity Norms, Trust

투고일: 2020.01.19. | 심사완료일: 2020.02.23. | 게재확정일: 2020.02.24.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Dankoo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8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김성중(金聖鍾) 현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Productivity of Cities: Theory, Measurement, Policy Implication”(1992) 이라는 주제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문적 관심 분야는 정책학, 정책분석평가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심리적 자본이 공기업 종사자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2019)’이 있다.
(poec@dankook.ac.kr)